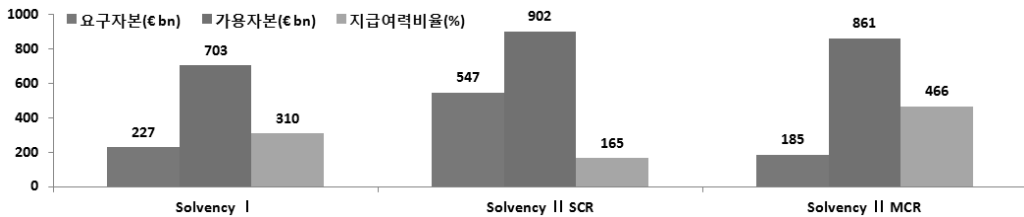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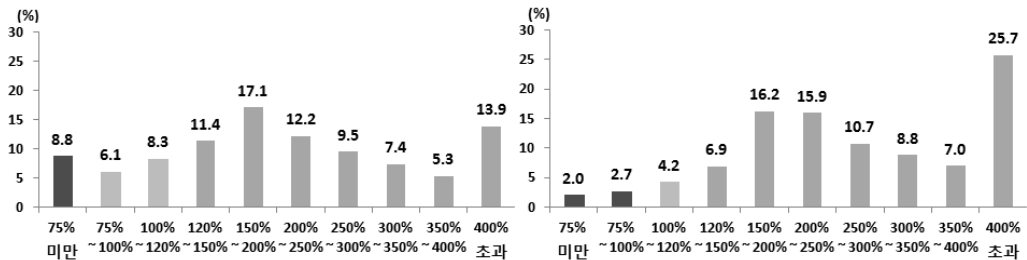
부록 3. 제5차 계량영향평가(QIS 5) 주요 결과

- 2010년 하반기 EIOPA는 각국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Solvency II 준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5차 계량영향평가(QIS 5)를 실행함.
 - 보험그룹 167개를 포함한 총 2,520개 보험회사가 참여(Solvency II 대상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95%, 보험료 85% 이상을 차지)
-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을 Solvency I (310%)과 비교하면, SCR 지급여력비율 (165%)은 감소하나 MCR 지급여력비율(466%)은 증가함(부록 그림 III-1 참고).
- 개별 회사별로 보면,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이 100% 미만인 보험회사가 상당 수 존재함(부록 그림 III-2, 3 참고).

부록 그림 III-1 지급여력비율 비교



부록 그림 III-2 SCR 지급여력비율 분포 부록 그림 III-3 MCR 지급여력비율 분포



자료: EIOPA(2011).

저자약력

■ 황인창

KAIST 경영공학 박사
보험연구원 연구위원
(E-mail : ichwang@kiri.or.kr)

■ 조재린

Queen's University 통계학 박사
보험연구원 연구위원
(E-mail : jrincho@kiri.or.kr)

CEO Report 2016-4

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

발행일	2016년 7월
발행인	한기정
발행처	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
인쇄소	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- 2999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
(☎3775-9043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